

일산 킨텍스 옆에 차이나타운 조성 (한국일보 2005.04.25)

[부동산 특집] 일산 킨텍스 옆에 차이나타운 조성

요리점·쇼핑몰 일색 탈피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중국 민관투자 적극 유치, 2012년까지 완공키로

경기 일산 신도시에 비즈니스와 쇼핑, 연구개발(R&D) 기능을 갖춘 대형 차이나타운이 들어선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지원내 2만 1,0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일산 차이나타운'(조감도)은 타운 내에 들어서는 시설의 규모나 입점 업체들의 종류에서 기존의 차이나타운과는 판이하다. 이곳에는 중국 음식점 중심인 일반 차이나타운과 달리 복합 쇼핑몰, 호텔, 한중문화교류센터, 한중무역센터, 칭화(淸華) 신과기원 등 연구시설과 복합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야말로 한중 민간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꾸며지는 것이다.

특히 중국 칭화주주유한공사가 주주로 참가해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일부 중국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차이나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에 따르면 일산 차이나타운은 올해 우선 1차로 복합쇼핑몰 4,200평을 개발한다.

이곳에는 정통 중국요리점 38개와 중국 토산품점, 한국특산품점, 해외명품 편집 매장 120개 등 총 150여개의 매장이 들어선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은 차이나타운으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먼저

중국 등 중화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중국 베이징의 오리전문점, 상하이의 이허차관 등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나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 쇼핑몰과 한류우드(30 만평) 광장 사이에

지어질 2 차 개발 예정지에는 고급 호텔을 비롯해 청화신과기원, 삼국지 문화원, 한중문화교류센터,

한중무역센터 등의 연구·업무·숙박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산 차이나타운 조성이 완성되는 2012 년까지는 국내 최고의 중화권 비즈니스 타운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행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일산 차이나타운은 50 만 인구의 일산 신도시 내에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차로 30 분 거리에 있어 위치적으로도 기본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국제전시장, 한류 우드, 호수공원 등에 인접해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일산차이나타운 관계자는 “기존 차이나타운과 달리 일산 차이나타운은 직접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대학의 연구시설과 민간 업무·상업시설을 모두 갖춘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화권의 문화·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 2005/04/24 16:27

입력시간 : 2005/04/24 16:27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504/h2005042416253151380.htm>